

청년·경단녀·반퇴자 '온라인 창업' 는다

쇼핑몰 플랫폼 카페24 조사... 1인·소자본 창업 '장점'

20·30 男 비중 38.7%...경력 단절 40대 女 해마다 증가

여성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창희(가명·29·남)씨는 대학 시절부터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대신 특기를 살려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되어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정도가 됐다.

출산 후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한 김미정(41·여)씨도 최근 창업을 선택했다. 퇴사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단녀(경력단절여성)'문제는 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 김씨는 과거 직장 생활경력을 살려 온라인 상에서 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베이비시터' 사업을 창업했다.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는 20·30대 남성층 출신·육아로 경력에 공백이 생긴 4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창업은 1인 창업이 가능한 데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다른 창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오프라인 창업 또한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온라인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제공 업체인 카페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창업자 가운데 20·30대 남성의 비중은 38.7%로 집계됐다. 2014년 37%, 2015년 36.8%에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매달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들 연령대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온라인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40대 여성의 온라인 창업 비중 또한 2014년 7.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2%까지 확대됐다.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온라인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들 직장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단녀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온라인 창업시장에서 40·50대 남성의 비중은 2014년 16.3%, 2015년 16.9%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8.6%까지 커졌다.

이처럼 온라인 창업 시장에서 40·50대 남성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조기 퇴직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직접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온라인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게 온라인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공기관에서 고용관련 업무를 하며 최근 취업 관련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박현태(가명·46·남)씨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불안하게 정년을 맞는 것 보다는 창업으로 전문경력을 지속하는 게 미래에 더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페24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투자금 부담과 리스크가 큰 자영업 창업과 비교해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다른 업무에 비해 본인이 직장생활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반퇴자 창업 비중이 늘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8.48 (+5.09) 금리 (국고채 3년) 1.71% (0.00)
- ↑ 코스닥 596.11 (+0.04) ↑ 환율 (USD) 1169.10원 (+0.60)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W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올 뉴 K7 하이브리드 공식 출시 행사에서 김창식(왼쪽) 기자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과 배우 공유키가 올 뉴 K7 하이브리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차 제공>

조용하지만 강하다 'K7 하이브리드'

공식 출시...판매 돌입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차는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올 뉴 K7 하이브리드' 공식 출시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K7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연비(16.2km/ℓ)에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이 특징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연비 개선 위해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새로 적용하고 전역 사용과 엔진 출력 변화 등을 실시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환경부하로직을 개선했다.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하는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 감성을 위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EV모드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엔진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

하이브리드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가속 성능도 개선했다. 튜닝으로 초기 발전 성능을 강화, 정지에서 시속 20km에 이르는 시간을 기존 3.0초에서 2.2초로 줄였고 재가속 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래피드 다이내믹 리드인' 기술을 적용했다.

디자인은 음각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알파벳 'Z' 형상으로 빛나는 헤드램프 등 시장 반응이 좋은 '올 뉴 K7'의 외관을 최대한 계승하면서 풀 LED 헤드램프, 크롬 아웃사이드미러, 후면 하이브리드 엠블럼 등을 새로 장착했다. 이밖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9개의 에어백 등 편의·안전장치를 추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백화점 속 산타마을 지난 30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1층 컬처스퀘어를 찾은 아이와 부모가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산타빌리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에너지신산업 분야 무엇이 좋은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내일 동반성장 포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락)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정용기)은 2일 광주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방안을 소개하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한다.

올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은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의 후원으로 해마다

다 봄·가을로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참여방안을 소개하는 문체부 주 기초전략연구원 에너지밸리분원장의 '떠오르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무엇이 좋은가?'라는 주제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정용기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용승 광주시청 에너지산업과장, 양승학 호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이사, 김형락 중앙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종부세 15일까지 납부해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9223명에게 625억 원을 오는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545억원(7793명)에 비해 세액은 14.7%, 인원은 18.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

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

납부방법은 은행·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금액은 금액 제한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최재호기자 lion@

세 일 글

"금융 소외계층 신용회복 지원 강화"

김동언 캠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국유재산 전담 관리 공공기관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김동언(55) 본부장은 "지역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함께 인터

넷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한 지역민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생인 김 본부장은 조선대 경영학과와 경희대 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해 조세정리부 체납징수단장, 경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h3>오피스텔(사무실) 매매 6층</h3> <p>동구 수기동 사무실</p> <p>50평 (6층) 천별로 전망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p> <p>★ 차세 1억6천만 매가 1억1천만 ※(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p> <p>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p> <p>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6천 월 5만)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p>	<h3>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h3> <p>북구 오동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p> <p>(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p> <p>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p> <p>★ 감평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p>	<h3>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p> <p>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함!!) ▶ 매가 8천500만</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우수리 천별로 전망 좋음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1억 4천만 서구 쌍촌동 인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운전원 변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현재값으로 내림)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클럽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8백만) ▶매가 8천 500만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클럽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7천 500만 전남 광양 광명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목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h3>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h3> <p>경매 추천 물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80평 1층 ~ 3층 (상가 4층주택) 아파트 단지 / 코너자리 재건축 / 불선주민센터 1분 거리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평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서구 금호동 (1층 식당) 토 69평 건 137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사거리 코너 식당 적격 추천 / 커피숍, 옷가게 추천 ▶감평가 13억 → 최저가 9억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평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점 / 넓은 평수 / 광고 최고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
010-7384-7800		010-6670-9800	